

2020 KSP 연차보고서



목차

「2020년 KSP 연차보고서」는 2020년에 종료된 2019/20 KSP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 KSP는 통상 두 개 연도에 걸쳐 실시

| | | |
|--------------------------------|--|----|
| PART. 1 | 사업 개요 | 06 |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소개 | 주요 연혁 | 08 |
| |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 10 |
| | 사업추진 현황 | 12 |
| | <hr/> | |
| PART. 2 | 코로나19 동향 및 KSP의 대응 | 16 |
| 하이라이트 | 2019/20 KSP 추진 현황 | 17 |
| <hr/> | | |
| PART. 3 | 코로나19 위기대응 체계 강화 지원 | 20 |
| 2019/20 KSP 주요 자문 사업 소개 | 거시경제 펀더멘털 개선 | |
| | 몽골의 거시안정성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관리방안 | 21 |
| | 불가리아의 경제위기 감지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 24 |
| | 보건 정책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28 |
| |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 | 29 |
| | 베트남의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 32 |
|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지원 | 35 |
| | 그린-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
| | [GGGI] 멕시코 소노라주의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 36 |
| | [IDB] 온두라스의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 지원 | 39 |
| | 디지털-뉴노멀 시대의 혁신 가속화 | 42 |
| | [IDB] 콜롬비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지원 | 43 |
| |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 | 46 |
| 행사 소식 | | |
| 2020 공유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식공유” | 50 | |
| <hr/> | | |
| PART. 4 | 2019/20 KSP 지역연구: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 54 |
| 2019/20 KSP 연구 사업 소개 | 협력국 기초분석 조사 | 56 |
| |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 57 |
| | <hr/> | |
| PART. 5 | 2019/20 KSP 사업 목록 | 62 |
| 부록 | 2019/20 KSP 지역연구 결과 요약 | 64 |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공유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

PART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소개

사업 개요

주요 연혁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사업추진 현황

사업 개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지난 70년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지식공유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84개국을 대상으로 1,300여 개 주제에 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였다. KSP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총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KSP는 협력대상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고도성장기 한국의 정책 추진 경험을 일반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각국의 경제사회 환경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최적의 대안을 공동으로 찾아내는 상호학습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제안의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개발대상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capacity)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KSP는 개도국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는다.

KSP는 우리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및 외교정책과 연계해 양국이 호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력국의 정책과 제도,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KSP를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교역 조건과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식공유와 경제협력 간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제에서는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고,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KSP는 개발대상국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헝가리, 칠레 등 고소득국가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과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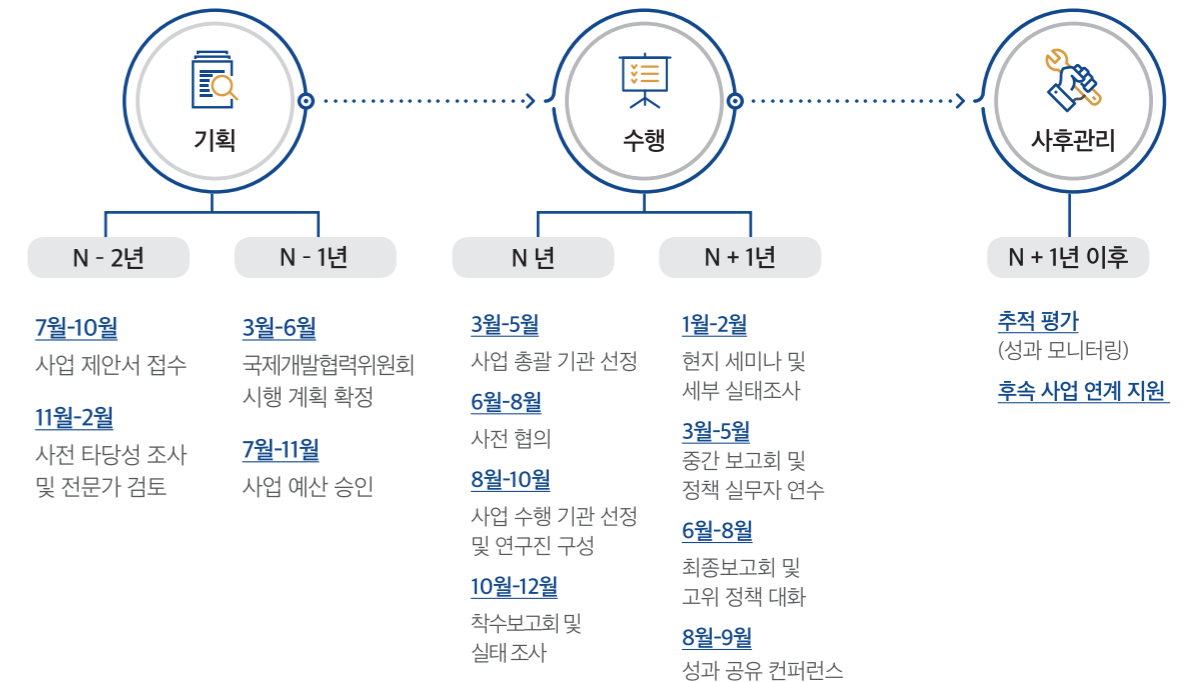
KSP는 경제, 사회, 공공 부문(산업무역, 과학기술, 거시경제 및 금융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자문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수요와 한국의 비교 우위, 협력국의 발전 단계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안하며, 정책자문과 역량강화연수 기회를 제공해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KSP는 사업 방식에 따라 한국과 협력국 정부 간(G2G) 사업인 양자 정책자문사업과 KSP 사업에 다자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기술협력사업을 연계해 삼각협력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 특징



사업 단계 및 일정

※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주요 연혁

KSP는 국제사회의 수요와 호평에 힘입어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모델이 다양해졌다.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정책자문 내용이 협력국의 제도를 개선하고,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04

- 양자 정책자문사업 시작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2006

- 제1회 성과 공유 컨퍼런 개최
- 베트남 수출진흥기구 설립

2007

- KSP 협력지역 확대 (고소득국, 신흥국 등)

2008

- 우즈베키스탄 나보이경제특구 설립

2009

- KSP, 국가브랜드 사업 선정('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현대화사업(IDB) 연계 및 국내 기업 수주
- 중점지원사업 시행



2010

-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시작 (2010-2015년, 148건 수행)
- 우리나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2011

- 공동컨설팅사업 시작 (WB, ADB, IDB, UN-APCICT)
- 수석고문제도 도입
- 'KSP 발전 방안' 발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베트남 2011-2020 경제사회발전 전략' 채택

2012

- 정책자문관 파견제도 도입
- 제1회 지역별 세미나 개최 (동유럽, 아시아, 중남미)
- 한-WB KSP 지식공유 포럼
- KSP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도입(Young KSPians, 2012-2017년)
- 인도네시아 반둥 상수도 시스템 구축 사업(KOICA) 연계



2013

-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 사업 (KOICA) 연계
- OECD 지식공유연대(KSA) 출범
- 시스템 컨설팅사업 시작 (2013-2016년, 25건 수행)



2021

-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발표 (대외경제장관 회의)
- 우즈베키스탄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 사업 (EDCF) 연계
- 벨라루스 2021-2025 국가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및 스마트 산업 디지털 플랫폼 개설

2020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출범(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EDCF) 연계
- 세르비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과제 연계

2019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 연계
- 루마니아 생산성연구센터 설립

2018

- 스리랑카 중등교육분야 ICT 허브 구축 사업(EDCF) 연계
- 케냐 지능형 교통 체계 개선 사업 (EDCF) 연계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GKEDC)' 개관



2017

- 'KSP 2.0 발전 방안' 발표 (대외경제장관회의, 신흥국 경제협력 지원)
-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VKIST) 설립 지원 사업(KOICA) 연계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제도 개선

2016

- 범부처 협력사업 도입
- UAE 특허 시스템 수출
- 멕시코 산학협력센터 설립



2015

-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채택
- 「KSP 10년사」 발간
- 다자 협의체 대상 정책자문사업 시작 (비세그라드그룹)
-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 사업 (KOICA) 연계
-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 사업 (EDCF-IDB 협조용자) 연계

2014

- 분야별 추진 체계 개편 (경제, 산업·무역, 건설·인프라)
- 이집트 나가 힘디-룩소르 철도 전자연동 시스템 구축사업 (EDCF-WB 협조용자) 연계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2004년에 시작된 KSP는 2020년까지 84개 협력국, 10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12 | 중동 · 북아프리카

- 리비아
- 모로코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UAE)
- 알제리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집트
- 쿠웨이트
- 튀니지

22 | 중남미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17 | 중앙아시아 · 유럽

- 러시아
- 루마니아
- 몰도바
- 벨라루스
- 불가리아
- 비셰그라드그룹(V4)
- 세르비아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조지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공화국
- 타지키스탄
- 터키
- 헝가리

15 | 아프리카


- PASET 협의체
- 가나
- 가봉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
- 르완다
- 모잠비크민주공화국
- 앙골라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적도기니
- 케냐
- 콩고
- 탄자니아

18 | 아시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메콩강위원회(MRC)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스리랑카
- 아세안(ASEAN)
-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캄보디아
- 태국
- 태평양도서국포럼(PIF)
- 파키스탄
-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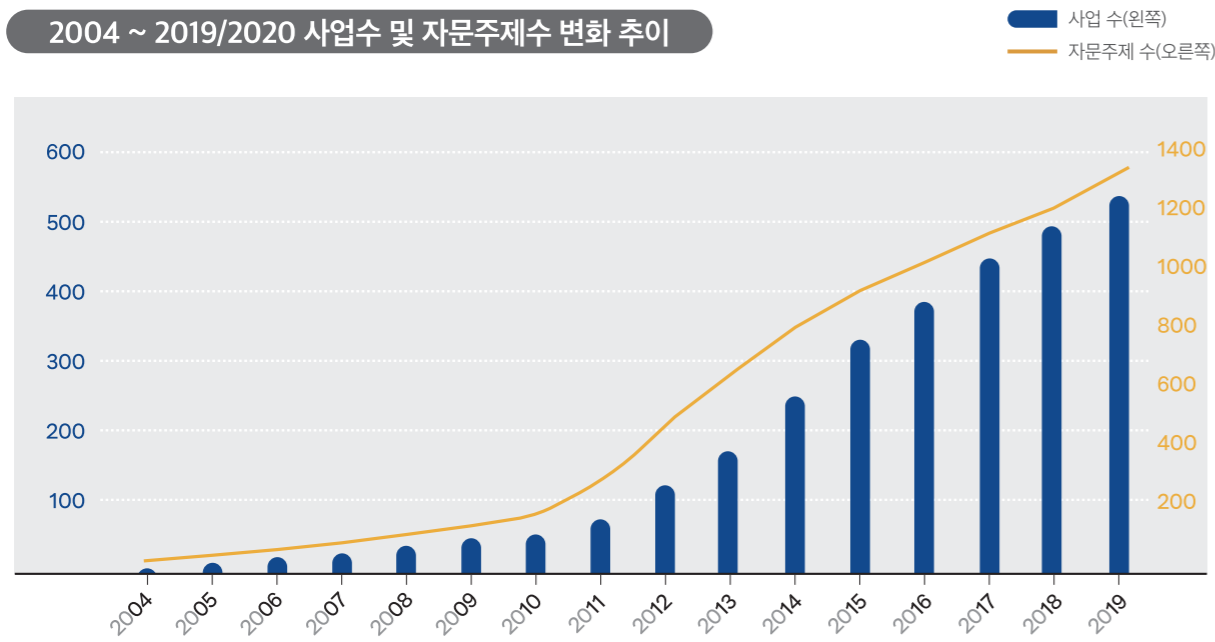
※ 누적 기준

I 국제기구 파트너십

| | | | | | | | | | |
|---|---|---|---|---|---|---|---|---|---|
|  |  |  |  |  |  |  |  |  |  |
| 세계은행 (WB)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 미주개발은행 (IDB) | 아시아개발은행 (ADB) | 아프리카개발은행 (ADB) | 중남미개발은행 (CAF)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국제무역센터 (ITC) | 유엔 아태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 (UN-APC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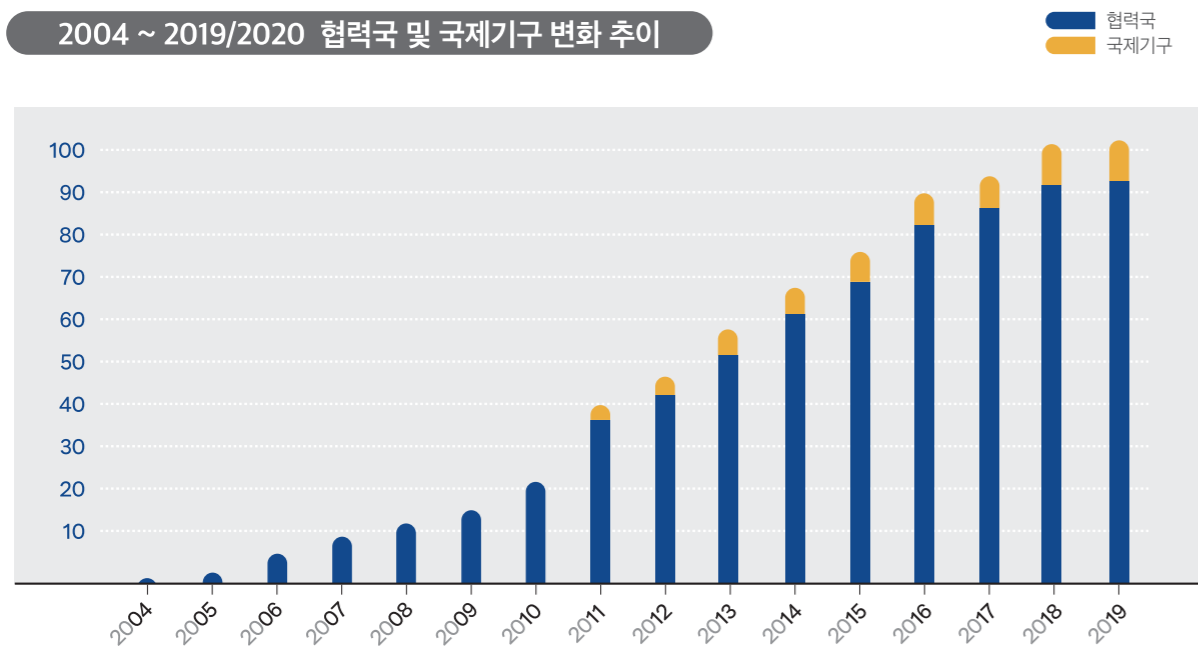
사업추진 현황(2004-2019/20)

2004 ~ 2019/2020 사업수 및 자문주제수 변화 추이



※ KSP는 협력국과 협의하여 한 사업에서 하나의 주제 또는 여러 세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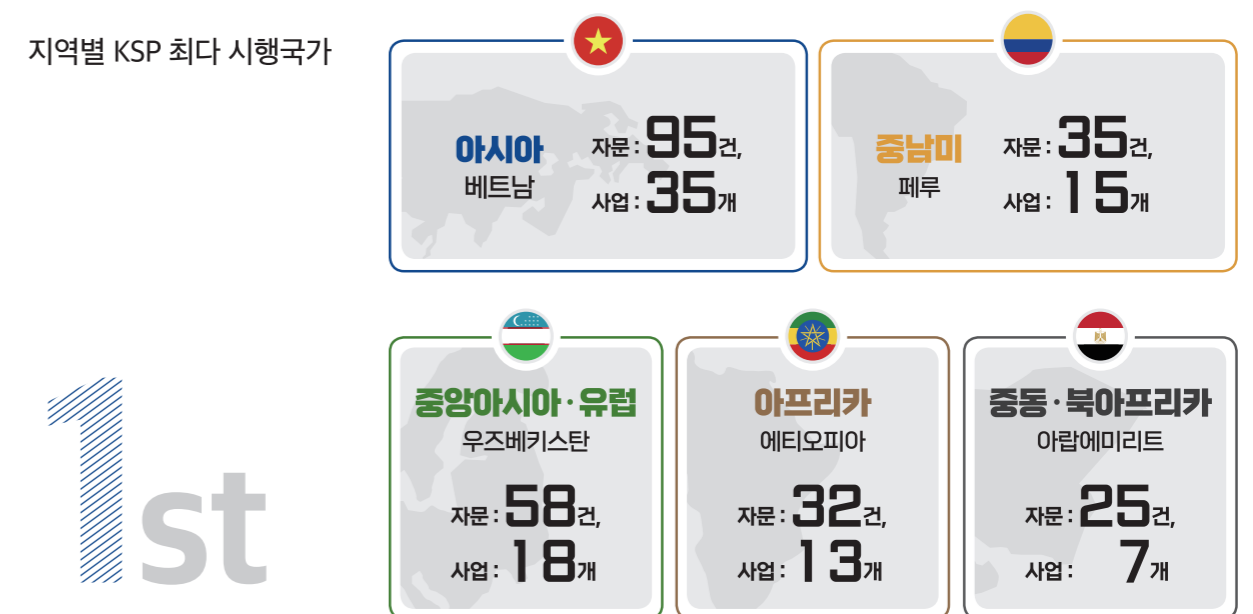
2004 ~ 2019/2020 협력국 및 국제기구 변화 추이



지역별 자문수



지역별 KSP 최다 시행국가



※ 사업수 기준으로는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16개 사업),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8개 사업)가 가장 많이 참여

KNOWLEDGE SHARING PROGRAM

PART

2



하이라이트

—
코로나19 동향 및 KSP의 대응
2019/20 KSP 지역별 협력국 현황
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

하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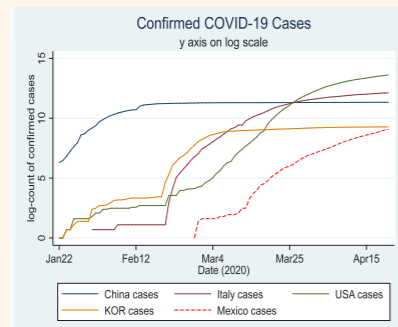
코로나19 동향 및 KSP의 대응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많은 국가가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KSP는 협력국들이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9/20 KSP 사업 중 협력국의 코로나19 위기대응 체계 강화(거시경제, 보건)를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그린, 디지털)를 지원한 사업들을 소개한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식공유'를 주제로 진행된 2020 성과공유 컨퍼런스 소식과 더불어 연구사업으로서 지역연구, KSP 내실화와 협력모델 확대를 위한 협력국 기초분석 연구,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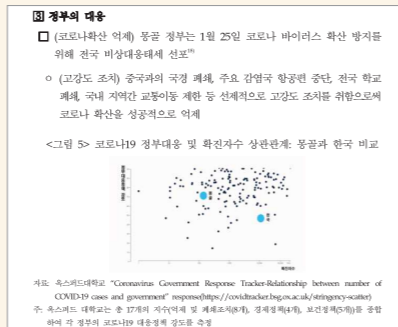
2019년에 시작된 2019/20 KSP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반부터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제약이 따랐고, 협력국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 정책자문 방향을 조정하였다. 초청과 방문 등 대면 협력은 화상회의와 영상자료 등 비대면 협력으로 대체하였으며, 가급적 정책자문 내용에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한편, 영상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더 많은 협력국 관계자에게 KSP 정책제언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대면·비대면 협력방식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KSP는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 변화와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 기반 협력사업으로서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KSP는 팬데믹 초반부터 코로나19의 협력국별 확산 동향 및 경제적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경제, 복지 및 공공투자), 국가별 KSP 추진 시사점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협력국 수요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멕시코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몽골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동향



코로나19 대응 KSP 홍보영상

※ 사업 영상은 KSP 홈페이지(www.ksp.go.kr)에서 확인 가능

KSP는 3D 연수, 화상회의, 정책제언 요약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실무자연수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10명의 협력국 실무자를 초청했던 방한 연수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었으며 협력국 관계자에게 KSP 정책제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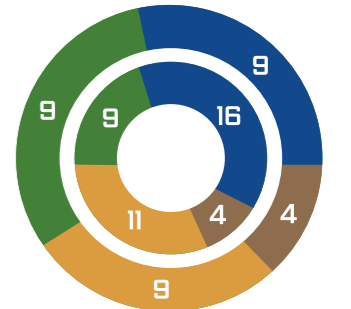


KSP 정책제언 최종보고-화상회의 및 요약 영상

모잠비크 관계자 3D 연수 참여

2019/20 KSP 지역별 협력국 현황

| | 사업수(건) | 국가수(개국) |
|----------|--------|---------|
| 아시아 | 16 | 9 |
| 아프리카 | 4 | 4 |
| 중남미 | 11 | 9 |
| 중앙아시아·유럽 | 9 | 9 |
| 합계 | 40 | 31 |



※ 2019/20 KSP 전체 사업 목록은 66쪽 참고

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

■ 경제정책(19개 사업)



■ 사회정책(12개 사업)



■ 공공부문(9개 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PART

3



2019/20 KSP 자문 사업 소개

코로나19 위기대응 체계 강화 지원

01. 거시경제 펀더멘털 개선

몽골의 거시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관리방안
불가리아의 경제위기 감지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02. 보건 정책 개선 및 인프라 구축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
베트남의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지원

03. 그린-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GGGI] 멕시코 소노라주의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IDB] 온두라스의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 지원

04. 디지털-뉴노멀 시대의 혁신 가속화

[IDB] 콜롬비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지원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

행사 소식

2020 공유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식공유”

01

코로나19 위기대응 체계 강화 지원 거시경제 펀더멘털 개선



전 세계의 많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과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효율성만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시스템을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2019/20 KSP 사업 중 협력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한다.

- 01 몽골의 거시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관리방안
- 02 불가리아의 경제위기 감지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2020년 기준)



몽골의 거시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관리방안

● 주제 관련 한국의 경험

재정 및 외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거시경제를 안정화하여 오일 쇼크(1972, 1978), 아시아 외환위기(1997-98), 세계 금융위기(2007-08)에도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며, 1970년대부터 한국 여건에 맞는 거시경제전망 모델을 구축·활용하여 경제정책 효과 분석 및 경제 전망에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

2019/20 몽골 KSP는 위기 속에서도 몽골이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거시경제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재무부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몽골은 내륙국이자 광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중국 경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외국인 투자 유·출입으로 인한 붐-버스트(boom-bust)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다. 몽골은 재정수입의 30% 이상이 광산업에서 나오는데 외국인 투자의 50% 이상이 광산업에 쏠리고 있어 몽골 경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매우 높다. 이 와중에 2015-16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몽골은 1.1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2017년 여섯 번째 IMF 구제금융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이에 몽골 재무부는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을 배우고 2020년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거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KSP 정책자문을 요청하였다.

2019년 말 KDI는 내부전문가는 물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학술적 역량까지 갖춘 거시경제 전문가 6인을 연구진으로 구성하고 12월 중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재무부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경제정책국, 재정정책기획국 등의 정책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홍영만 수석고문과의 고위정책대화와 착수보고회를 통해 나란초크트 산자(Narantsogt Sanjaa)



고위정책대화-홍영만 수석고문(좌 중앙)과 나란초크트 산자 사무차관(우 중앙) (2019.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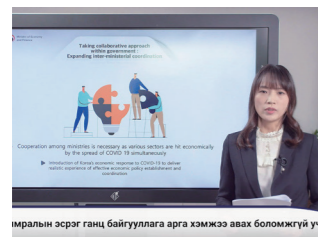
사무차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얻어내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구제금융프로그램 시행 이후 여러 나라와 협력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도 바트후렐 갈산도르(Batkhurel Galsandorj) 경제정책국장, 간바야르 잡흘랑(Ganbayar Javkhlan) 거시경제 선임이코노미스트 등 재무부의 주요 인력이 현지 전문가로 참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몽골 현황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착수보고회 이후 한국 사절단은 재무부의 협조로 중앙은행, 국가개발청, IMF 몽골사무소와 면담을 진행하여 몽골 거시경제 위기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문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착수보고회(2019.12.11.)



중간보고회(2020.05.28.)



정책실무자연수 영상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몽골 정부가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현지 세미나의 경우 한국 연구진과 현지 전문가가 보고서 상호 검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다. 이후 현지 전문가들은 현지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연구진이 준비한 세부실태조사 질문과 필요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대면 회의,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을 통해 주제별 몽골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되던 중간보고회와 정책실무자연수는 각각 화상회의와 연수영상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정책실무자연수는 한국의 성공 경험 위주의 일방적 정보 전달을 지양하고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연수영상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코로나 시대에서의 안정적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소개하는 영상과 한국 연구진이 단기 거시경제전망 모델 2개를 시현하는 영상 등 총 3편으로 제작되었다. 해당 영상은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재무부 관계자에게 공개되었으며 사업 종료 이후 몽골 재무부 내부직원 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이후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봉쇄조치를 유지한다는 몽골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20년 9월 9일 최종보고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연구진의 주요 정책제언은 1) '산업 및 무역 다변화를 통한 재정 자유화와 외채 문제 해결, 거시경제 정책 조정 거버넌스 개선', 2) '재정 준칙의 재정비와 일시적 예외조항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국부펀드를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과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적극적 외채 관리', 4)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일반 균형 개념의 중규모 거시시계열 모델과 나우캐스팅(Nowcasting) 모델** 구축'이다.

* 학습이력 관리와 맞춤형 학습 제공이 가능한 온라인시스템
 ** GDP 통계보다 주기가 짧은 지표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망치를 추정하는 경기전망 모형



최종보고회(2020.09.09.)

이에 대해 바트후렐 갈산도르 경제정책국장은 몽골 정부의 오랜 숙원이자 가장 시급한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몽골 여건에 맞게 KSP 정책제언이 잘 도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후 몽골 정부의 조속한 KSP 정책제언 채택을 위해 KDI는 나란초크트 산자 사무차관과 치메디인 후렐바트르(Chimediin Khurelbaatar)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주제별 최종 정책제언 몽골어 요약문을 재무부에 전달하였다. 사업 종료 이후 재무부는 재정과 외환 건전성 확보를 위한 KSP 정책제언을 활용할 예정이며, 그중 외환부문 정책제언은 2020 거시 진단 분석 보고서(Macro diagnostic analysis report)에 포함되어 치메디인 후렐바트르 재무부 장관과 국회에 보고되었다. 또한, KSP 정책제언은 재무부가 나우캐스팅 기반 거시경제 전망 모델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재무부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 증가와 중국 실물 경제 위축 등으로 몽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KSP를 통한 효과적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몽골 경제의 기초체력이 개선되어 오늘날의 위기가 오히려 몽골의 중기 경제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KSP 최종보고서 | 정책실무자연수(영상)

MONGOLIA

몽골의 거시안정성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관리방안

사업 내용

1. 거시안정화 정책 수립 방안-거시경제정책조합(Policy Mix) 개선방안
2. 몽골 재정안정화룰(Fiscal Stabilization Rule) 개선방안
3.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 확보방안
4. 경제전망 모델링 발전방안

잠정 성과

1. 거시건전성 외환정책 도입을 위해 2020 거시 진단 분석 보고서 장관 보고 완료
2. 정부재정 운영지침으로서의 지출규칙과 재정건전성 관리 준거로서의 부채규칙을 유지하는 방안 도입을 긍정 검토
3. 나우캐스팅을 활용한 몽골 경제 전망 모델 구축 진행

※ 본 사업은 4개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세부주제별 관련 한국경험, 주제 관련 현황 분석, 정책제언을 포함

(2020년 기준)

불가리아



| | |
|---|--|
|  수도 소피아 Sofia |  1인당 GDP 9,842 달러 |
|  면적 11만km ² 한반도의 약 1/2 |  협력부처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 |
|  인구 약 695 만명 | |

불가리아의 경제위기 감지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 주제 관련 한국의 경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7개 분야(외환시장, 국내금융, 금융기관, 에너지, 자원, 부동산, 노동시장)별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을 연결하여 부문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5년부터 국가조기경보체제를 운영하여 경제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정책대응에 활용

* 에너지, 자원은 폐기되고 노동시장 조기경보모델은 재정 부문으로 대체

2019/20 불가리아 KSP는 부동산, 원자재, 노동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 및 응용지침, 분야별 조기경보모델을 자문함으로써 불가리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였다. 2018년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국가 부채의 악순환에 갇힌 상태였다. 불가리아 또한 경기 불황을 비켜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자국 내에서 팽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리아의 경제 계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기관인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는 불가리아 경제 불황을 유발할 수 있는 거시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KSP에 정책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KSP는 2019년 4월 사전협의를 통해 자문요청 배경 및 사업 수요를 파악하였고, 불가리아가 취약한 부동산, 원자재, 노동 분야를 대상으로 1)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및 응용지침, 2) 부동산 분야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3) 원자재 분야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4) 노동 분야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이라는 연구주제에 합의하였다.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및 응용지침'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검토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및 운영지침을 제공했다. 나머지 주제는 한국과 불가리아의 부동산, 원자재, 노동시장 위기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불가리아에 맞는 분야별

조기경보 모델을 제시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직접 참여했던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섭외하여 우리나라의 시행착오 및 실패 사례들을 토대로 불가리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불가리아 조기경보 모델에 알맞은 변수를 사용하여 위기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설계하였다.

2019년 9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의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KSP는 라체자르 보리소프(Lachezar Borisov) 경제부 차관을 포함하여 경제부, 재무부, 노동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부동산, 원자재, 노동시장의 현황을 이해하고 연구 주제별 수요 및 도전과제를 파악하였다. 2020년 1월에는 현지 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를 위해 소피아에 다시 방문하여 모델 구축과 변수 및 데이터의 유효성, 변수 간 상관관계 등을 중심으로 불가리아의 경제위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1차 실태조사-불가리아 경제부 면담(2019.09.23.)



최종보고회(2020.07.22.)



정책실무자연수에 대한 테세브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의 감사서한(2020.04.27.)

중간보고회는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2개월간 걸쳐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2020년 7월 최종보고회와 고위정책대화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라체자르 보리소프 경제부 차관과 알렉산더 테세브(Alexander Tassev)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장 등 약 40명이 넘는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KSP는 이 자리에서 최종 정책자문 결과를 발표하고 자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정책실무자연수는 같은 해 10월에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경제부 차관에서 영전한 보리소프 장관과 세르게이 츠베타르스키(Sergei Tsvetarsky) 불가리아 통계청 등을 포함하여 경제부, 노동부, 통계청, 불가리아 개발은행, 불가리아 주요 3대 대학,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속 27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 발전 경험과 시스템 운영 실무를 강의하였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정책실무자연수 이후 테세브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이 KDI로 감사 서한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2019/20년 불가리아 KSP 사업은 초반 두 번의 현지 출장을 통해 협력기관인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를 비롯하여 현지전문가 및 주요 협력부처인 경제부와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협력국 고위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 현지 전문가 및 사업관리자였던 전(前) 불가리아 부총리인 다니엘라 보베바(Daniela Bobeva) 교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 매 단계에 참석하였던 보리소프 장관의 높은 관심은 정부부처 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현지세미나-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 면담(2020.01.05.)

이번 사업은 고위급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불가리아 경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현지 전문가로 참여하여 현지 분석의 신뢰성과 정책반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협력 연구를 통해 현지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1년 4월부터 임시정부 체제로 인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나,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는 경제부, 재무부, 노동부와 분야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 수립과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불가리아 통계청과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11월 대선 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조기경보시스템 추진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미래 경제 변화를 예측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2019/20년 불가리아 KSP를 통해 제공된 조기경보 모델은 불가리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화를 달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최종보고회(2020.07.22.)



KSP 최종보고서



정책실무자연구(영상)

BULGARIA

불가리아의 경제위기 감지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사업 내용

1.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및 응용지침
2. 부동산 분야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3. 원자재 분야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4. 노동 분야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잠정 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반영 :
KSP 조기경보 모델을 활용한 위기분석 시행

※ 본 사업은 4개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세부주제별 관련 한국경험, 주제 관련 현황 분석, 정책제언을 포함

02

코로나19 위기대응 체계 강화 지원 보건 정책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가 한계에 직면해있다.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보건 불평등,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품질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국가 성장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2019/20 KSP 사업 중 협력국의 보건·의료 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한다.

01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

02 베트남의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2020년 기준)

PHILIPPINES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
Metro Manila

1인당 GDP
3,300 달러

면적
34만km²
한반도의 1.5배

협력부처
보건부

인구
약 1억 877만 명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

● 주제 관련 한국의 경험

- 진료비 심사·평가, 의약품 유통, 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 약가 참조가격 바스켓 확대, 위험분담제를 활용한 약가 협상 제도를 통해 보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
- 진료비 심사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운영하여 의료복지의 비용효과성 제고
- 2000년에 전담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후 운영

2019/20 필리핀 KSP는 필리핀 정부의 의료서비스 재정 부담 완화와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대한 자문을 시행하였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이후, '국가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 실현을 위해 발표한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하나인 보편적 의료보장(Sustainable Development Goal 3.8: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해 2019년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are)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필리핀 전체 인구의 약 93%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에 가입해 있어 중저소득국 중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가장 잘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환자 본인부담의료비의 비중은 전체 의료비 6,590억 페소(약 15조 2,000억 원)의 5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유사한 경제 수준을 보이는 인근 국가 인도네시아(37%)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이보다 2년 전인 2014년에 지불제도를 개편(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 기반

총액예산제)하였지만, 진료의 적정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은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의 부당, 과다, 허위 청구의 예방과 효과적인 진료비 관리가 필요하지만,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효율적인 보건의료비 지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필리핀 정부는 높은 약가 유통 마진을 해결하기 위해 약가개혁(Drug Pricing Reform)을 단행하였으나, 의료공급자의 약가 마진이 매우 높아 효율적인 의약품 유통 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리핀 보건부는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에 관한 KSP 정책자문을 요청하였다.

사업의 첫 단계로 KSP는 2019년 12월 필리핀을 방문하여 프란시스코 듀케(Francisco Duque III) 보건부 장관, 롤란도 엔리케 도밍고(Rolando Enrique Domingo) 보건부 차관, 아르넬 데 헤수스(Arnel De Jesus) 건강보험청 부청장 등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필리핀 의료 서비스 관련 정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듀케 보건부 장관은 정책 최우선순위인 2022년까지 필리핀 내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 KSP 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했다.



1차 출장-장관 면담(2019. 12. 19.)



1차 출장-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관 방문 (2019.12.18.)

한편, 필리핀은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정전 이후 한국의 재건에 지원을 해 준 국가로 KSP 사업관계자는 KSP 착수 후 첫 행사로 양국 우호관계의 초석이 된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을 기리는 뜻에서 마닐라 국립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양국 간 입·출국이 원활하지 못해 남은 사업 단계는 화상회의 및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위해 보건부의 보건제도국 및 조달공급망관리국, 건강보험청 IT관리국, 급여정보분석팀, 심사평가팀 등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서면 질의서를 수차례 교환하였다. 또한, 면밀한 현지 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부 내 안나 멜리사 게레로(Anna Melissa Guerrero) 팀장, 건강보험청의 아르투로 툰텐티노(Arturo Alcantara) IT관리국장(부청장 대행) 등이 현지 전문가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한국 연구진은 약 1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험과 필리핀에 적용 가능한 정책제언을 발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비용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과 유통 관리를 위해 의약품 정보 표준화와 유통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의료기술 평가와 단일보험자의 가격협상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구축된 전산 심사 현황을 검토하여 '후향적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동시적 DUR(Drug Utilization Review)'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정책제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연구 결과를 영상보고서로 제작하여 보건부 차관 및 건강보험청 부청장을 비롯한 유관부처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최종보고회 영상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필리핀 건강보험청장 감사장(2020.12.07.)

필리핀 정부는 KSP 정책제언을 토대로 ICT 기반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한 의약품코딩시스템과 가격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도입, 참조가격제 대상국가 바스켓 확대(한국 포함)를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상실험 가이드라인과 임상 결과 기반 의료청구서 제출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자청구(Web-based medical claim)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처럼 필리핀 정부는 보편적 의료 보장을 확대하고자 KSP 정책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KSP 정책제언은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보장 3개 축 중 '급여 항목'의 확대와 '본인 부담' 축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건강보험청은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보장 및 국가의료보장체도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는 의미로 KSP에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리핀 보건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질병관리청 운영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연구진은 필리핀 보건부의 질의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필리핀 보건부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필리핀 질병관리센터 설립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지출이 급증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본 사업과 같이 KSP가 협력국이 보건의료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SP 최종보고서



정책자문 결과요약 (영상)

PHILIPPINES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

사업 내용

1. 진료비 심사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2.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정보관리서비스 도입 방안
3.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 협상 및 제도 개선 방안
4.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방안

잠정 성과

-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1. 건강보험청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진행 및 효과적인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한 의약품 코딩시스템 도입 준비
 2. 임상실험 가이드라인과 임상결과 기반 의료청구서 제출(안) 마련 및 전자청구 적용 확대 방안 마련 중
 3. 의료기술 평가 도입과 참조가격제 대상국가 확대 준비
 4. 필리핀 질병관리센터 설립 추진 계획 마련

※ 본 사업은 4개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세부주제별 관련 한국경험, 주제 관련 현황 분석, 정책제언을 포함

(2020년 기준)

베트남



| | |
|---|----------------------------|
| 수도 하노이 Ha Noi | 1인당 GDP 3,416 달러 |
| 면적 33 만km ² 한반도의 1.5배 | 협력부처 보건부 |
| 인구 약 9,646 만명 | |

베트남의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주제 관련 한국의 경험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통해 포괄적 의료보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1차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 주기적 의과대학 인증 평가와 표준화된 의학 교육을 통해 의료인력을 양성, 질병관리청 운영과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만성질환제도 및 국가 건강 검진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2019/20 베트남 KSP는 보건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자문하여 베트남의 효과적인 만성질환 및 감염병 관리 기반 구축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보건 의료 분야의 장점 및 노하우를 전수받고 베트남의 보건 선진화 계획 수립에 참고하였다. 베트남 의료시스템은 국가, 성, 지역, 코뮌(commune) 단위로 분절돼 있어서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의료인력 및 의약품 수급 측면에서 양질의 의료 인력을 1차 의료기관에 유치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고, 국가가 의약품 공급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서 진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보건부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의료인력 역량 개발 등을 도모하고자 KSP에 정책자문을 요청하였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베트남 보건부와와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 보건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여 당면 문제 및 현안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사업 범위가 결정되었다. KSP는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 보건 의료 환경에 알맞은 장단기적 발전 계획 및 개선(To-Be) 모델을 수립하고, 달성 가능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화상연수를 통해 베트남에서 보건 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핵심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종료 시점에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나아가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사업을 제안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전협의-보건부 면담(2019.08.13.)



중간보고회(2020.08.13.)



정책실무자 연수(2020.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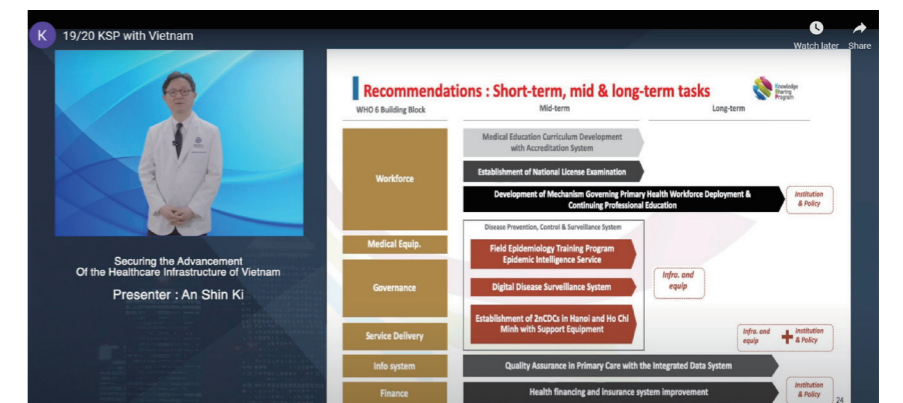


최종보고회 - 베트남측 회의 전경 (2020.11.19.)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상을 제작한 후 베트남 보건부에 전달하여 사업범위 및 연구진행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실태조사 미시행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자 현지 전문가와의 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보건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특히 베트남 보건부 정책관계자 및 실무자, 보건전략정책연구소(HSPI: Health Strategy and Policy Institute) 소속 현지 컨설턴트와의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중간보고회는 한국 허경욱 수석고문, 팜레투항(Pham Le Thu Hang) 베트남 보건부 기획국 부국장, 쩌 티 마이 오아잉(Tran Thi Mai Oanh) 보건전략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팜레투항 부국장이 디지털헬스와 의료인력 역량 강화 및 교육체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등 보고회는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다. 정책실무자연수는 당초 베트남 보건부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출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사전에 제작한 강의 영상을 송부해 진행하였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1차 의료, 질병감시체계, ICT 기반 질병관리 체계, 의료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5개 강의를 수강하였고, 별도로 마련된 강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연수 내용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최종보고회도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응우옌 쩡응 선(Nguyen Truong Son) 보건부 차관 등 고위급을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수행기관의 발표는 베트남 보건 의료 시스템 현황 분석, 한국의 보건 의료 인프라 개선 경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베트남의 보건 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 및 첨단 보건 의료 시스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제언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KSP 사업을 통해 베트남 보건 의료 인프라 선진화 계획이 수립되어 베트남 정부의 보건 의료 인프라 관리 및 정책 집행 역량이 향상되고, 보건 의료의 디지털화와 의료인력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의 결과를 유·무상 원조사업으로 연계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베트남 보건부는 후속사업으로 EDCF 차관을 통해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연구진은 ICT 기반 질병감시체계 구축, 관련 인력 양성, 재원 조달 방안 등 필요 과업을 분석한 후 국가단위(2개소) 및 지역단위(2개소) 질병관리본부(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설립, 디지털 질병감시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EDCF 차관 2.5억 달러 규모의 사업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최종보고회-정책제언 요약 영상

한국은 지난 2020년 6월 K방역 3T 국제 표준화 전략 등의 발표를 시작으로 검사 및 확인 6종, 역학 추적 4종, 격리 치료 8종 등 18종의 국제표준화 분야의 설정을 위한 단계별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국제표준화 작업의 결과물을 협력국과 공유하는 첫발을 베트남에서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보건 의료체계가 열악한 나라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보건 및 방역 분야의 선진 경험을 토대로 시행한 이번 사업은 앞으로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VIETNAM

베트남의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사업 내용

- 베트남 보건인프라 및 의료인력 역량 강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 1차 의료기능 강화, 디지털 헬스, 의학교육 강화
 - 의료인력 역량 개발 지원
 - 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방안 수립 자문

잠정 성과

국내 후속협력 연계: 베트남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연계 추진 중(2021년 사전타당성조사, 2.5억 달러)



KSP 최종보고서



정책자문 결과요약 (영상)

※ 본 사업은 세부주제를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자문 시행

0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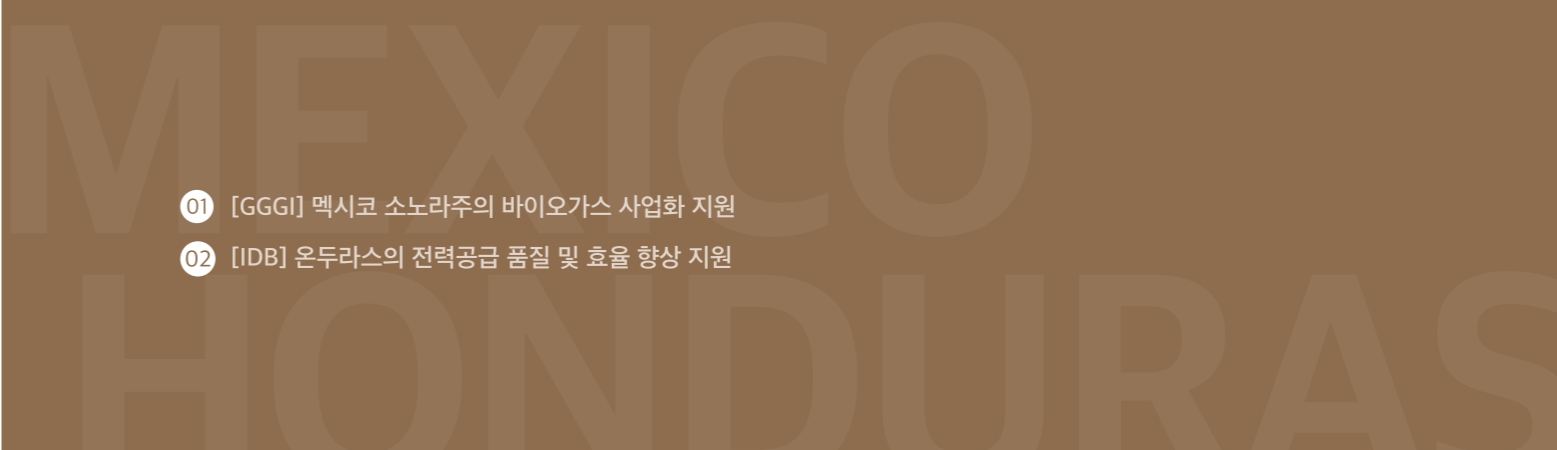
그린-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우리 사회·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전에는 쉽사리 체감할 수 없었던 기후 위기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2019/20 KSP 사업 중 협력국이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 사례를 소개한다.

01 [GGGI] 멕시코 소노라주의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02 [IDB] 온두라스의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 지원



(2020년 기준)

멕시코



| | |
|--|---|
| 수도 멕시코 시티 Mexico City | 1인당 GDP 8,421 달러 |
| 면적 196 만km ² 한반도의 9배 | 협력부처 소노라 주정부 생태·지속가능개발위원회 |
| 인구 약 1억 3,020만 명 | 대상지역 소노라 주 State of Sonora |

[GGGI] 멕시코 소노라주의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 주제 관련 한국의 경험

2000년대부터 대도시권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중심으로 폐기물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품질 및 안전기준 마련, 보조금 지원 등 유기성폐기물 관리와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 및 보급 확대

* 2020년 기준 110개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 중

2019/20 멕시코 KSP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함께 진행한 공동컨설팅 사업으로,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바이오가스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소노라주(State of Sonora)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사업화 방안 및 지원 정책 개선안을 자문하고 소노라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식 함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세계 12위의 석유 생산국인 멕시코는 석유 외에도 석탄과 가스를 보유한 자원부국이지만 해가 갈수록 석유가 고갈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멕시코는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풍부해 에너지원 다변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원 정책 및 규제 미흡,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GGGI는 덴마크에너지청(DEA: Danish Energy Agency)의 소노라주 바이오가스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에 이어 한국의 바이오가스 개발 경험을 토대로 바이오가스 개발 실증사례를 발굴하고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자 KSP 정책자문을 요청하였다.

멕시코 북부에 위치한 소노라주는 연중 일정하게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으며 멕시코 전체 양돈 생산량의 18%를 차지하는 데 따른 다량의 도축 부산물 발생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노라주 정부는 DEA의 제안에 따라 도축 부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개발하길 희망했다. 그러나 현지의 여건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1차 실태조사-에르모시요 하수처리장 시설 점검 (2019.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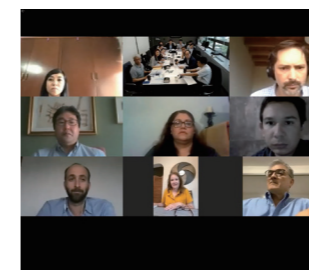
실현 가능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노라주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후 사업계획을 조정하였다. 조사 결과 에르모시요(Hermosillo) 하수처리장의 혐기성 소화조를 활용하되 도축 부산물 대신 에르모시요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사업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노라주 정부와 GGGI와의 협의하에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 타당성 조사, 적정기술 제안과 사업화 방안, 바이오가스 개발 지원 정책으로 사업 범위를 재조정하였다.



바이오가스 라운드테이블(2020.02.10.)



에르모시요 시장 면담(2020.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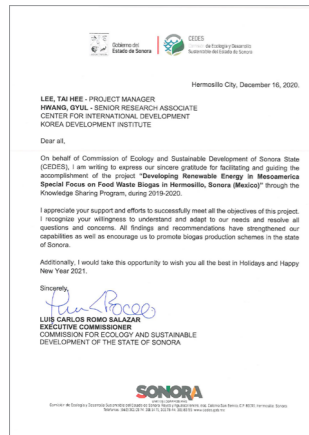
중간보고회(2020.06.10.)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2월 한국 측은 착수보고회와 세부실태조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측 사업관계자와의 소규모 착수보고회와 연방환경부, 멕시코 바이오가스위원회, 멕시코 주재 외교공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초청한 바이오가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 연구진은 참석자들과 KSP 사업계획과 한국의 바이오가스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멕시코 측 발표와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멕시코의 바이오가스 개발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후 소노라주로 이동하여 루이스 까를로스 로모(Luis Carlos Romo) 소노라주 지속가능발전·생태위원회(CEDES: Comisión de Ecología y Desarrollo Sustentable del Estado de Sonora) 위원장, 셀리다 로페스(Celida Lopez) 에르모시요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민간기업(Tiar, IB-Tech, Norson, IDOM), NGO(POLEA), 대학교(UNAM) 등 다양한 현지 관계자를 만나 정확하게 현황을 검토하고 현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팬데믹 선포 전에 현지방문 실태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현황 분석이 수월했고, 사업 초반부터 양국 사업관계자 간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통해 수치상으로는 알 수 없는 하수처리장과 혐기성 소화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소노라주 정부(CEDES)와 에르모시요시 정부, GGGI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한국에서 하수처리장의 계통도, 배치도, 측정 자료 등 중요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유입물 및 혐기성 소화조 내 슬러지의 성상 분석, 현지 단가를 고려한 사업비 분석, 최신 정책자료 수집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중간보고회와 정책실무자연수는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여전히 입·출국이 불가능한 점과 시차를 고려하여 영상 제작으로 대체하여 시행하였다. 연수 영상은 멕시코 측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기술, 정책에 대한 강의, 시설·공정 습득을 위한 현장 탐방 영상 등 총 9편으로 제작되었다. 한편, 영상을 멕시코 측에 단순히 전달만 할 경우 현지의 참여도와 피드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 화상회의를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지 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2020년 10월 멕시코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멕시코 외교부 기술협력국장, 에르모시요시장실 관계자, GGGI 중남미 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연구진은 1)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소화조 개선 후 음식물 단독 처리 시나리오 제안”, 2) “시나리오 기반 개념 설계, 추정 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3) “바이오가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 수준에서의 보조금 지원 제도와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제도 수립, 관계자 역량 강화 방안”을 주요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멕시코 측은 KSP 제안이 현지의 수요와 현황을 잘 고려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앞으로 정책제언을 반영하고 GGGI와 함께 후속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노라주 정부는 사업종료 후 KSP 정책제언에 따라 폐기물·플라스틱법(The Act on



CEDES 위원장 감사서한(2020.12.16.)

Waste and Plastic, 2022.01. 시행)을 제정하였고, 생산자 및 지자체 쓰레기 매립지 비용 분담 제도(The 1ST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석탄연료 발전으로 인한 환경처리비용을 상쇄하는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편익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 멕시코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달리 연방제인 멕시코는 주마다 고유의 헌법과 강력한 자치권을 갖고 있으므로 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바이오가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주로 성과를 전파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멕시코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가스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멕시코는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다변화를 꾀해야 할 뿐 아니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의거 2020년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를 절감해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멕시코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녹색 산업 발전을 통해 저탄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KSP를 통한 지식공유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MEXICO

[GGGI] 멕시코 소노라주의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사업내용

1. 멕시코 소노라주, 에르모시요 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타당성조사
2. 개념설계 및 사업화를 위한 적정기술 제안, 비용분석 및 자원조달 방안
3. 소노라주, 멕시코의 바이오가스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

잠정성과

1. 폐기물-플라스틱법(The Act on Waste and Plastic, 2022.01. 시행 예정) 제정
2. 생산자 및 지자체 쓰레기 매립지 비용 분담 제도(The 1ST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추진 중

※ 본 사업은 3개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세부주제별 관련 한국경험, 주제 관련 현황 분석, 정책제언을 포함



KSP 최종보고서



정책자문 결과요약 (영상)

(2020년 기준)

HONDURAS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
Tegucigalpa

인당 GDP
2,383 달러

면적
11 만km²
한반도의 1/2

협력부처
에너지부

인구
약 924 만명

[IDB] 온두라스의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 지원

● 주제 관련 한국의 경험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송배전망 설비 개선(1, 2차 배전 전압 승압 등) 및 운영효율화(송변전 설비 운전 자동화 등)를 통해 송배전 손실률을 대폭 감소시키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송배전 효율성 보유

* 송배전 손실률: 29.4% ('61) → 3.6% ('18)
(일본 4.7%, 미국 5.3%, 독일 6.8%)

2019/20 온두라스 KSP는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함께 진행한 공동컨설팅 사업으로, 온두라스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력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온두라스 에너지부를 대상으로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 방안을 자문하였다. 2017년 온두라스 국영전기회사(ENEE: Empresa Nacional de Energia Electrica)의 송배전 손실률은 전체 전력 공급량의 30% 이상이었으며, ENEE에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온두라스 정부는 7년에 걸친 배전망 손실 감소(32%→15%)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IDB 또한 온두라스 내 '7 Cities Program'과 같은 전력손실 감소 프로그램, 북부-중부 지방의 변전소 및 송전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전력 손실률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콜롬비아-온두라스 컨소시엄 전력공사(EEH: Empresa Energia Honduras)는 도전(盜電)과 같은 비기술적인 원인 제거에 집중할 뿐, 기술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마스터플랜은 부재한 상태였다.



사전협의(2019.06.19.)

이러한 배경에서 온두라스 정부는 전력 손실률이 낮은 한국의 사례와 기술을 공유하여 온두라스 내 전력 손실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전력 손실 저감을 위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 KSP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온두라스 정부 및 IDB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가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착수보고회(2019.11.13.)



실태조사(2019.11.11.)



중간보고회(2020.07.30.)



최종보고회(2020.10.08.)

사업의 첫 단계인 착수보고회는 2019년 11월에 개최되었다. 착수보고회에는 **오르도네스 로베르토(Ordóñez Roberto) 온두라스 에너지부 장관** 등 협력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전력 및 한국수출입은행 KSP 연구진이 사업 목표와 방향, 향후 연구 계획, 간략한 한국의 전력 손실 저감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ENEE에서 온두라스 전력 공급 및 손실 현황을 발표하며 세부적인 과업의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KSP 연구진과 온두라스는 향후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KSP 연구진은 착수보고회에 이어 1차 실태조사를 10여 일에 걸쳐 시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KSP 연구진은 IDB 현지사무소를 시작으로 온두라스 에너지부와 ENEE, EEH, 배전 사무소, 송변전 자동화 시스템(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센터, 계통관제실 등을 방문하며 온두라스의 전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2020년 2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2차 실태조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온두라스 측의 국경 출입 제한 조치로 취소되어 KSP 연구진은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비슷한 조건의 도미니카 공화국 자료를 활용하여 불평형률을 추산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보고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당초 온두라스 에너지부 및 관계기관(국영 전기회사, 전력규제위원회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향 중간보고회와 역량강화연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전달하고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전력 시스템의 이해, 전력 품질, 송·배전 방식, 시설 진단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연수 참여자들은 현장 방문이 불발된 점은 아쉬우나 강의 동영상과 계속 실무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 KSP 연구진은 한국의 사례와 온두라스 현지 실태를 종합하여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에너지부에 제안했으며, 온두라스 GDP 및 정부투자 가능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 적정 도입 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개선 계획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후 에너지부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전력 발전 과정, 산업 구도, 정책 및 기술 등 한국의 발전 경험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제안 외에도 비기술적인 도전 방지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온두라스에서는 앞으로 KSP 정책제언을 기반으로 배전자동화시스템 실증 사업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온두라스 중남부 지역 배전자동화시스템 기반 계통운영 선진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2025년 동안 온두라스 중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배전계통 종합 제어센터 구축, 배전자동화시스템(DAS: Distribution Automaton System) 구축 및 배전계통 보강, 원격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온두라스 KSP가 진행되는 동안 KSP 사업을 시작으로 실증사업(2단계),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 추진(3단계)과 같은 단계별 융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안정화와 경기 회복에 따라 온두라스의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실증사업이 온두라스의 전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두라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를 절감해야 하며 기존 온실가스 배출의 38%를 차지하는 발전(發電) 부문에서 상당한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온두라스의 전력 손실률이 감소한다면 온실가스 다배출원인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어

온두라스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KSP 사업이 확대된다면 협력국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KSP 최종보고서



정책자문 결과요약 (영상)

HONDURAS

[IDB] 온두라스의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 지원

사업 내용

온두라스 전력손실 감소를 위한 손·배전망 기술적·비기술적 개선방안 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잠정 성과

1. 융합 ODA 사업 연계(‘22~’25/17,952백만 원): 산업자원통상부(수해기관: KIAT)에서 추진 중인 온두라스 중남부 지역 배전자동화시스템 기반 계통운영 선진화 사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
2. EDCF 사업 연계추진 검토

※ 본 사업은 세부주제를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자문 실시

04

디지털-뉴노멀 시대의 혁신 가속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정보통신 기술의 수요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혁신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사회·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산업 생태계 발전과 궤를 같이해야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2019/20 KSP 사업 중 협력국의 디지털 역량을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자문한 사례를 소개한다.

01 [IDB] 콜롬비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지원

02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

(2020년 기준)

COLOMBIA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Bogota

1인당 GDP
5,336 달러

면적
114 만 km²
한반도의 5배

협력부처
· 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기획처
· 국립보건원
· 조달청

인구
약 5,037 만명

[IDB] 콜롬비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지원

● 주제 관련 한국의 경험

- 2015년 세계 최초 클라우드컴퓨팅 법률 제정 등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과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정부 자원 클라우드컴퓨팅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
 - * 투자비용(48%), 운영비용(49.6%) 절감
- 공공조달 :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KONEP)과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
- 보건 : 질병관리청(전 질병관리본부)은 감염병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운영



착수보고회(2019.12.03.)



고위정책대화(2019.12.03.)

2019/20 KSP 콜롬비아는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함께 진행한 공동컨설팅 사업으로 콜롬비아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국민보건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조달 및 보건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자문하였다. 이와 관련해 콜롬비아 정부는 부패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정부 부문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국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접근성 및 사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인프라가 미흡하고, 부처별로 전자정부시스템이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콜롬비아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역량 강화를 지원받으자 IDB 및 한국 정부에 KSP 정책자문을 요청하였다.

사업의 첫 단계인 착수보고회는 게르만 루에다(German Rueda) 정보통신부 차관과 심덕섭 수석고문이 참석하여 고위정책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사업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양측은 원활한



2차 실태조사
-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질의응답
(2020.02.25.)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착수보고회 이후 사업수행기관은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콜롬비아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콜롬비아 정부에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통신부(MinTIC: Ministerio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 de Colombia) 및 국가기획부(DNP: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관계자, 보건부 국제협력국장, 다수의 사업관계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조달 및 보건 분야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구체화하였다. 공공조달과 보건 분야는 부패근절 효과가 크고 예산 집행의 효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인데, 그중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조달시스템 고도화 방안, 보건 분야에서는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간보고회(2020.07.31.)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순탄하지 않아 당초 한국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중간보고회와 정책실무자연수가 동영상 제작을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되었다. 한국 측은 교육 데이터 표준, 빅데이터 분석 실습,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 시스템을 위한 요소기술 및 보안, 가상화 및 하이퍼바이저 기술 등의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콜롬비아 협력부처들에 전달하였고, 콜롬비아 관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연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행하였다. 이에 콜롬비아 사업관계자들은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한국의 공공조달 및 보건 관련 기관을 직접 답사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최종보고회(2020.09.18.)

2020년 9월 최종보고회에서 한국 측은 콜롬비아의 빅데이터 정책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는 통합빅데이터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과 조직 체계를 제안하였다. 통합빅데이터지원센터는 기술적 차원의 빅데이터시스템과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빅데이터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빅데이터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및 시각화를 처리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시스템이며, 클라우드 빅데이터 조직은 빅데이터 정책 실행을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한국 측은 또한 지원센터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콜롬비아 질병관리본부(INS: Instituto Nacional de Salud), 콜롬비아 조달청(CCE: Colombia Compra Eficiente)이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컴퓨팅을 위한 법률 개선, 기술 지원, 교육·훈련 체계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 정부가 KSP 정책제언을 활용할 수 있도록 EDCF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 작성을 지원하였다. 대상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과 빅데이터 분야의 역량 강화 사업 총 2건이다. 이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토대를 마련하여 정부의 업무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콜롬비아의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ICT 기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여러 위기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활용이 용이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KSP는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과 전자정부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국의 디지털 기반 행정이 정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KSP 최종보고서



정책자문 결과요약
(영상)

COLOMBIA

[IDB] 콜롬비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 내용

콜롬비아의 부패근절 및 예산집행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공조달과 보건분야(질병관리)의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방안 자문

잠정 성과

- 국내 후속협력 연계
- 1.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The Establishment of the Cloud Computing based Big Data System Project") 추진
- 2. "빅데이터훈련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Support for Establishment of Big Data Training Center and Capacity Building of Colombia Project") 추진

※ 본 사업은 세부주제를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자문 실시

(2020년 기준)

BRAZIL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Brasilia

1인당 GDP
6,200 달러

면적
851 만km²
한반도의 40배

협력부처
특허청

인구
약 2억 1천만 명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

● 주제 관련 한국의 경험

특허청은 서비스포털을 통해 전자출원, 산업재산권 관리, 증명서 발급, 진위확인, 수수료 관리 등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원스톱(One-Stop)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원 분야 디지털화를 달성

*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자출원 비율: 97.6%

2019/20 브라질 KSP는 브라질의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업재산권 보호 및 등록 효율성 제고를 위해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개선 방안을 자문하였다. 브라질은 2018년 기준 특허 출원 건의 첫 심사까지의 평균 적체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산업재산권 행정절차의 낮은 자동화 비율 및 개편되지 않은 행정절차로 인해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더욱이 브라질 특허청(INPI: 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의 특허행정시스템인 SINPI 및 SISCAP은 각각 1996년과 2010년에 개발된 후 현재까지 추가 개발 및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아 행정 소요 기간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긴 소요 기간과 자동화되지 않은 행정절차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라 불리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브라질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KSP 정책자문을 요청하였다.

2019년 12월 브라질 KSP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태근 수석고문을 비롯한 한국 측 연구진이 브라질을 방문하였다. 착수보고회에는 **클라우디오 빌라르 푸르타도(Claudio Vilar Furtado) 특허청장**, 주브라질대한민국 대사관 등 양국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 연구진은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지 의견을 청취하였다.



KSP 착수보고회 특허청 방문(2019.12.04.)



세부실태조사-특허청 방문(2020.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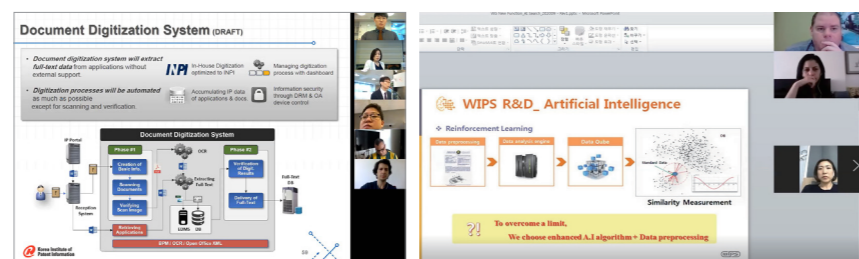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 현지 IP 로펌, 대리인사무소 및 브라질 산업재산권협회(ABPI: Associação Brasileira da Propriedade Intelectual), 브라질 특허청을 방문하여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및 ICT 인프라 운영 현황, 행정절차 등을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한국 측 연구진은 2차 실태조사차 다시 브라질을 방문하여 1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출한 잠정 제언을 브라질 특허청과 함께 검토하고 추가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때 후속사업 연계를 위해 브라질 특허청, 미주개발은행(IDB), 브라질 산업개발청(ABDI: Agencia Brasileira de Desenvolvimento Industrial) 등 관계 기관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간보고회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추진하였다. 화상으로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한국 연구진은 **미구엘 캄포 카르발류(Miguel Campo Carvalho) 브라질 경제부 혁신사무국장(차관보)**을 비롯한 브라질 특허청의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특허청의 개선과제와 한국의 선진사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잠정 정책제언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특허청은 앞으로 이를 특허청과 ABDI 간 정부부처 회의에서 공유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할 때 조달 가능 재원을 확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온라인 방한연수를 위해 브라질 특허청의 연수 수요를 바탕으로 브라질 특허청 정보화 개선 과제와 연관성 있는 주제에 관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원격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대민 대상 IP 인식제고 방안, 문서전자화 프로세스 등 지식재산권 강의 3편, 한국의 대민 검색서비스, 특허행정시스템 등 시스템 시연 2편, 한국의 산업재산권 유관기관 및 기업소개 6편 등 총 11종으로 구성된 연수영상은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공개되어 브라질 특허청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위해 개발된 국내 최초의 온라인 특허정보서비스인 '웍스'를 선정하여 브라질 특허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술시연회를 진행하였다. 미구엘 캄포 가르발류 차관보 등 총 10명의 브라질 주요 관계자는 웍스의 주요 서비스와 AI 특허검색, 스마트 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능을 온라인상에서 체험하였으며, 특히 AI 적용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연회에서는 또한 국내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브라질에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기초를 다지고 브라질로의 활로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보고회(2020.06.25.)

온라인 기술 시연회(2020.09.14.)



최종보고회(2020.09.17.)

최종보고회는 클라우디오 빌라르 푸르타도 브라질 특허청장, 미구엘 캄포 가르발류 경제부 혁신사무국장을 비롯한 브라질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연구진은 브라질 특허청의 목표 모델, 중장기 추진 전략, 자원조달 방안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먼저 브라질 특허청의 목표 모델 수립을 위해 연구진은 브라질 특허청의 현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맞춤형 표준모델을 제안하였다. 목표 모델은 서비스 포털 및 검색서비스, 문서 전자화 시스템, 통합 행정처리 시스템 및 심사용 검색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연구진은 목표 모델의 실현을 위한 단기 전략으로 대민서비스 및 산업재산권 정보보급 개선을 통한 정부정책 지원, 중장기 전략으로 출원 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자동화 및 지능화를 제시하였다. 브라질 특허청은 KSP 연구진이 제시한 IP 자동화시스템 개선을 위한 목표 모델과 전략 이행 방안을 높이 평가하고 당시 브라질 특허청이 영국 정부와 진행 중이던 브라질 특허권리 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두 사업의 제언을 종합하여 후속사업 개발을 논의하기를 희망하였다.

본 사업의 정책제언을 통해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브라질은 산업재산권 행정 효율화로 내·외국인 출원인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과 같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한국 ICT 기술을 활용한 KSP를 추진한다면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및 양국 간 공공-민간 디지털 협력의 강화로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은 더욱더 제고될 것이다.



KSP 최종보고서



정책실무자연수(영상)

BRAZIL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

사업 내용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발전을 위해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 목표모델 설계 및 단기·중장기 정보화 추진전략 자문

잠정 성과

민간 경제협력 촉진 : 우리 IT 기업의 진출활로 확대를 위한 브라질 특허청 관계자 대상 온라인 기술시연회 개최

※ 본 사업은 세부주제를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자문 실시

행사 소식

2020 공유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식공유”

기획재정부와 KSP 총괄기관은 매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KSP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ADB 연차총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ADB 연차총회가 연기되고 대형 집합행사 개최가 어려워져 2020년 11월 온·오프라인 병행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시기에 개최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공유사업·개발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한 KSP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 및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 역량이 한층 중요해졌으며, 디지털 전환, 저탄소·친환경 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 동향에 대응하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정책과 K-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과 KSP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KSP가 협력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KSP는 거시경제·금융·산업 등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데 집중했으나, 향후 보건·의료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스마트시티, 정보통신, 물 관리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의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Sardor Umurzakov)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는 영상을 통해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협력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그간 KSP를 통해 진행된 정책자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KSP 협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프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미국 MIT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코로나 시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를 통해 뒤플로 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량이 중요하며, 특히 소프트웨어·사회적 수용도 등 사회적 전달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특히 성공적이며, 한국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의 중요한 평가지표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보호 시스템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뒤플로 교수 기조연설



김용범 차관 개회사



전체 세션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식공유”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축사

※ 접속 국가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체코, 에콰도르, 이집트,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르완다, 세르비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터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전체 세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식공유”를 주제로 향후 개발협력 추진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류상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은 한국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베르나르도 기야몬(Bernardo Guillamon) 미주개발은행(IDB) 국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개발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두 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는 KSP 총괄기관 및 협력국 관계자가 참여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KSP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통해 KSP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서정화 한국수출입은행 다자사업부장은 다자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협력의 중요성을, 박철호 KOTRA 개발협력실장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다니엘라 보베바(Daniela Bobeba) 불가리아 전(前) 경제부총리와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KSP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간 전체 세션은 KSP 대표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발협력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협력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는 포용적 협력을 위한 지식공유의 역할 재정립 등 시기에 적합한 주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세션은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정책”과 “K-방역 경험 공유”로 구성되어 협력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대응을 지원한 KSP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정책” 분과에서는 벨라루스 KSP(산업의 디지털 전환), 브라질 KSP(산업재산권 자동화) 및 IDB-볼리비아 KSP(체계적 물 관리)를 통해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 사례가 공유되었다. “K-방역 경험 공유”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KSP(감염병 대응), 베트남 KSP(보건 인프라), 필리핀 KSP(보편적 의료보장)를 통해 협력국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선진화된 의료제도 수립을 지원한 KSP 사례가 공유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나, 그간 국내 관계자 위주로 진행되었던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KSP 협력대상국 관계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KSP 협력국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행사를 오후에 개최하고, 컨퍼런스 상황을 안정적인 스트리밍 기능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참여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 결과 총 27개국*에서 313명의 참석자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고,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KSP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공유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컨퍼런스로 거듭나게 되었다.

KNOWLEDGE SHARING PROGRAM

PART

4



2019/20 KSP 연구 사업 소개

2019/20 KSP 지역연구: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협력국 기초분석 조사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2019/20 KSP 연구사업 소개

2019/20 KSP 지역연구: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책 환경과 협력국의 복잡한 개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 중심의 사업운영에서 협의주의로의 확대 및 전환을 통한 KSP의 질적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KDI는 KSP 사업 총괄기관으로서 2016년부터 선제적인 사업 발굴·기획 및 추진 시 고려요인 도출을 목적으로 'KSP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9/20 KSP 지역연구는 유망협력분야와 추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각국의 정치·사회·문화 환경과 경제발전 및 성장잠재력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협력국의 경제 도약과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KSP 중장기 협력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의 대상국인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세 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치·사회·문화 부문에서는 각국의 정치구조 및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의사결정기관의 핵심 관계자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KSP 정책제언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각국 국민의 사회적 가치관과 정체성, 행동양식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특성 파악은 정책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협력국 간에 신뢰성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제구조 및 현황 분석에서는 협력대상국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발전 정책을 검토하고,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경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협력대상국의 경제구조에 이중경제모형 기반의 산업구조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분야별 성장잠재력과 발전제약요인을 식별하고, KSP 유망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KSP 유망협력분야 추진 방안에서는 협력국의 경제구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KSP 유망협력분야를 토대로 협력국의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및 비교우위 등을 검토하여 향후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국가별로 주요 KSP 유망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는 KSP 추진을 위해 에너지(가스, 전력) 관련 인프라 구축(배전망 현대화, 가스 파이프라인 개보수 등), 공공투자관리제도 개선(PPP 가이드라인 마련), 인적 자원 개발(직업훈련기금조성) 등을 유망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에는 신수도 및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개발(마스터플랜 수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신재생에너지원 활용), 항만물류 인프라 개선(수도 이전지 인근 항만 대상) 등을, 우즈베키스탄에는 농업현대화(도시근교 농업 Smart Farm), 스마트시티 개발(ICT 기반 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태양광 및 지역난방) 등을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협력분야별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다 실천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분야별 사업 추진 시 고려요인을 제시하였다.

협력국별 KSP 유망협력분야



| 미얀마 협력분야 | |
|-----------------------|--|
| 에너지(가스, 전력) 관련 인프라 구축 | |
| 공공투자관리제도 개선 | |
| 인적자원 개발 | |
| 토지관리제도 개선 | |
| 조세행정체계 개선 | |
| 도시개발/관리 | |
| 수출다각화 및 FTA 역량 강화 | |



연구보고서



| 인도네시아 협력분야 | |
|-----------------------|--|
| 신수도 및 주요도시 스마트 시티 개발 | |
|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
| 항만물류 인프라 개선 | |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 |



| 우즈베키스탄 협력분야 | |
|----------------------|--|
| 농업 현대화 | |
| 스마트시티 개발 | |
| 에너지(태양광/지역난방) 인프라 구축 | |
| 전자상거래 | |
| 건설산업 활성화 | |

※ 국가별 상세 유망협력방안 및 기대효과는 부록 참고

본 연구 결과는 2020년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EIPP 사업기획 단계에서 협력국의 성장잠재력과 중장기 경제발전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2020/21 EIPP 협력국별 사업 주제



| 사업주제 | |
|-----------------------------------|--|
| 미얀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 |
| 달라신도시 인프라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 |
| PPP 제도 구축 및 성과 공유 | |
| 투자관련 토지정책 개선 | |
| 에너지 통계 수집 및 활용 개선 방안(모듈화 사업으로 전환) | |



| 사업주제 | |
|--|--|
| 동 칼리만탄과 신수도 경제발전 로드맵 및 신수도권 개발관리 종합계획 | |
| 수도이전에 따른 자카르타 수도권 경제 개발 전략 | |
| 신수도 개발 자금조달방안 | |
| 신수도 에너지전환 마스터플랜 및 에코스마트시티를 위한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 |



| 사업주제 | |
|------------------------------------|--|
| 건설 및 농기계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
| 첨단기술 기반의 물 및 자원순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
| 국가 빅데이터 추진 전략 수립 | |
| 국가 스마트 물류 마스터플랜 수립 | |
| 태양에너지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

협력국 기초분석 조사

KDI는 KSP 개시 이래 지금까지 축적한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2017년부터 KSP 사업에 부합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SP 협력국 기초분석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KSP 지역연구가 매년 연구 시의성이 높은 협력국을 선별하여 유망협력분야 및 사업 추진 시 고려요인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연구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KSP 사업 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2019/20 KSP 협력국 기초분석은 대외경제전략 및 ODA 중점협력국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52개국*을 선정하고 각국의 발전여건 및 정책현안, KSP 추진실적 및 협력도, KSP 정책자문 및 경제협력 추진 시 기회/위험요인, 한국과의 협력현황 등 협력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KSP 사업추진 방식에 맞게 구분하여 KSP 사업관계자에게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KSP 지수 분석**' 및 주요 경제전략, 'KSP 추진실적 및 협력여건', '주요 경제 지표 및 산업구조', '한국의 대(對)협력국 ODA, FDI 및 무역 변화 추이 분석' 등 4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파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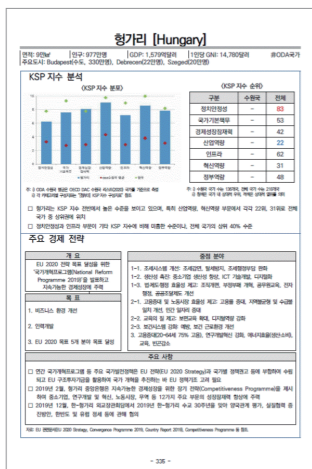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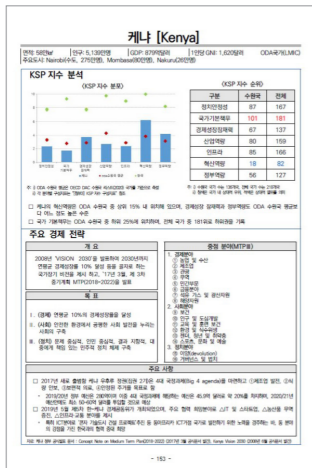
첫 번째, 'KSP 지수 분석 및 주요 경제전략' 파트에서는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분석한 결과와 최신 정책 동향을 담았다. KSP 지수를 활용하여 협력국의 주요 부문별 발전여건을 한국 및 수원국의 수준과 비교·분석하였으며, 협력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정부 문건을 토대로 협력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계획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두 번째, 'KSP 추진실적 및 협력여건' 파트에서는 협력국과의 KSP를 개시한 이래 최근까지의 협력분야, 주요 성과 등 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향후 해당 국가와의 KSP 정책자문 및 경제협력 추진 시 기회·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해당 협력국과의 KSP 협력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주요 경제 지표 및 산업구조' 파트에서는 최근 5년간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 추이를 제시함으로써 협력국 경제의 단기적 특수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산업별 비중 및 수출품목별 비교우위 수준을 분석·수치화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중기적 시각에서 한국의 대(對)협력국 ODA, FDI 및 무역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 협력국에 대한 KSP 수행내역과 유·무상 개발원조 대표기관인 EDCF와 KOICA의 ODA 사업수행 정보를 함께 다룸으로써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KSP 협력국 기초분석은 분석 대상국 확대(48→52개국), KSP 지수 고도화(혁신역량 지표 추가), 사업필수 정보(KSP 성과) 및 활용가이드 부문을 추가함으로써 한층 더 체계화된 협력국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본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여건을 협력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협력국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국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KSP 협력국 기초분석 자료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별 대상국 수: 아시아(12개국), CIS·유럽(16개국), 중동·북아프리카(2개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9개국), 중남미(13개국)

** KSP 지수: 협력국의 발전 여건 분석을 목적으로 7개 주요 부문(정치안정성, 국가기본책무, 경제성장잠재력, 산업역량, 인프라, 혁신역량, 정부역량)에 해당하는 경제사회 지표를 선별하여 지수화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KSP는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사무국(SEGIB: Secretaría General Iberoamericana)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2018년 KSP 중남미 지역 세미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회원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삼각협력(한국-SEGIB-중남미국가)을 통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중남미 국가의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남미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전체 기업 수 및 고용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 인력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 연구진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한국 정부의 경험을 전달하였고, SEGIB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전환 추진이 가능한 경제규모를 갖춘 4개국(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을 선정하여 현황 분석 및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SEGIB는 또한 좀 더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칠레 정부의 재원으로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SEGIB 지부(멕시코 및 우루과이) 담당자 및 국별 협력부처**와 협력하여 중남미 현황을 분석하였다.

KSP 연구진은 사업 공식 착수 및 실태조사를 위해 2019년 7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3차 SEGIB-이베로아메리카 산업협회위원회(CEIB) 중소기업 포럼에 참석했다. 이 행사의 1일차에는 아르헨티나 노동부, 기업부 장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중소기업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들과 함께 국가별 중소기업 혁신 지원정책의 현황과 민간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2일차에는 중소기업 진흥과 디지털역량 강화에 관해 한국 경험을 발표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아르헨티나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학계 인사, 콜롬비아 중소기업국장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 연구진은 국별 협력부처 관계자와 함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연구에 관해 협의하였다. 최종보고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나, 이베로아메리카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5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 접속 국가 :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프랑스

한편, 본 연구의 총론을 집필한 권오규 전(前) 부총리는 최종보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제4차 산업혁명이 맞물리면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의적절하게 본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공동연구가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SEGIB 측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경험이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안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후 한국 연구진과 SEGIB은 아래와 같이 중남미 현황과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이베리아반도와 중남미 22개국의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국별 협력부처 : 아르헨티나(생산부), 칠레(경제부), 콜롬비아(산업부), 멕시코(경제부)

| 연번 | 발표주제 및 주요 내용 | 발표자 |
|----|--|--|
| 1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 - (주요 내용) 한국의 금융, 신용보증과 세금 지원,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프로그램, 스마트팩토리 사례 공유 - (시사점) 1) 정부 핵심 분야 선정과 가용자원 분석, 2) 민·관 협력, 3)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정책을 우선 추진 | 김중운 (한남대학교) |
| 2 | 중소기업 자가진단을 위한 디지털 성숙도 지표 개발 - (주요 내용) 한국의 디지털전환 수준 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 - (시사점) 산업 현장의 디지털전환 수준 진단을 위한 디지털 전환영역 도출 및 진단체계 구축 | 서중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3 | 이베로아메리카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주요 내용) 중남미 중소기업 혁신 지원 공공정책 현황 및 디지털전환 추진 방향 발표 | 에스테반 길레르모 캄페로 (Esteban Guillermo Campero) (SEGIB) |



제3차 SEGIB-이베로아메리카 산업협회위원회(CEIB) 중소기업 포럼 - 국별 고위급 포함 중 참석자(2019.07.02.)



제3차 SEGIB-이베로아메리카 산업협회위원회(CEIB) 중소기업 포럼 - 이베로아메리카 중소기업 디지털혁신 세션(2019.07.02.)



제3차 SEGIB-이베로아메리카 산업협회위원회(CEIB) 중소기업 포럼 - 공동연구 착수보고회(2019.07.03.)

한국 연구진과 SEGIB의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계 시 제약요인,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애로사항,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학의 역할, 한국 디지털 전환 정책의 성공요인, 디지털 전환에서 대기업의 역할과 민관 협력,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이와 더불어 최종보고회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최종보고회 만족도와 KSP 인지도 및 사업 참여 의사를 조사하였다. 총 응답자 수는 등록자 수의 21%인 128명이었으며, 설문 결과 KSP 인지도는 낮았지만 최종보고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KSP 사업제안 관련 면담을 희망하는 응답자 수는 73%에 달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삼각협력 또는 양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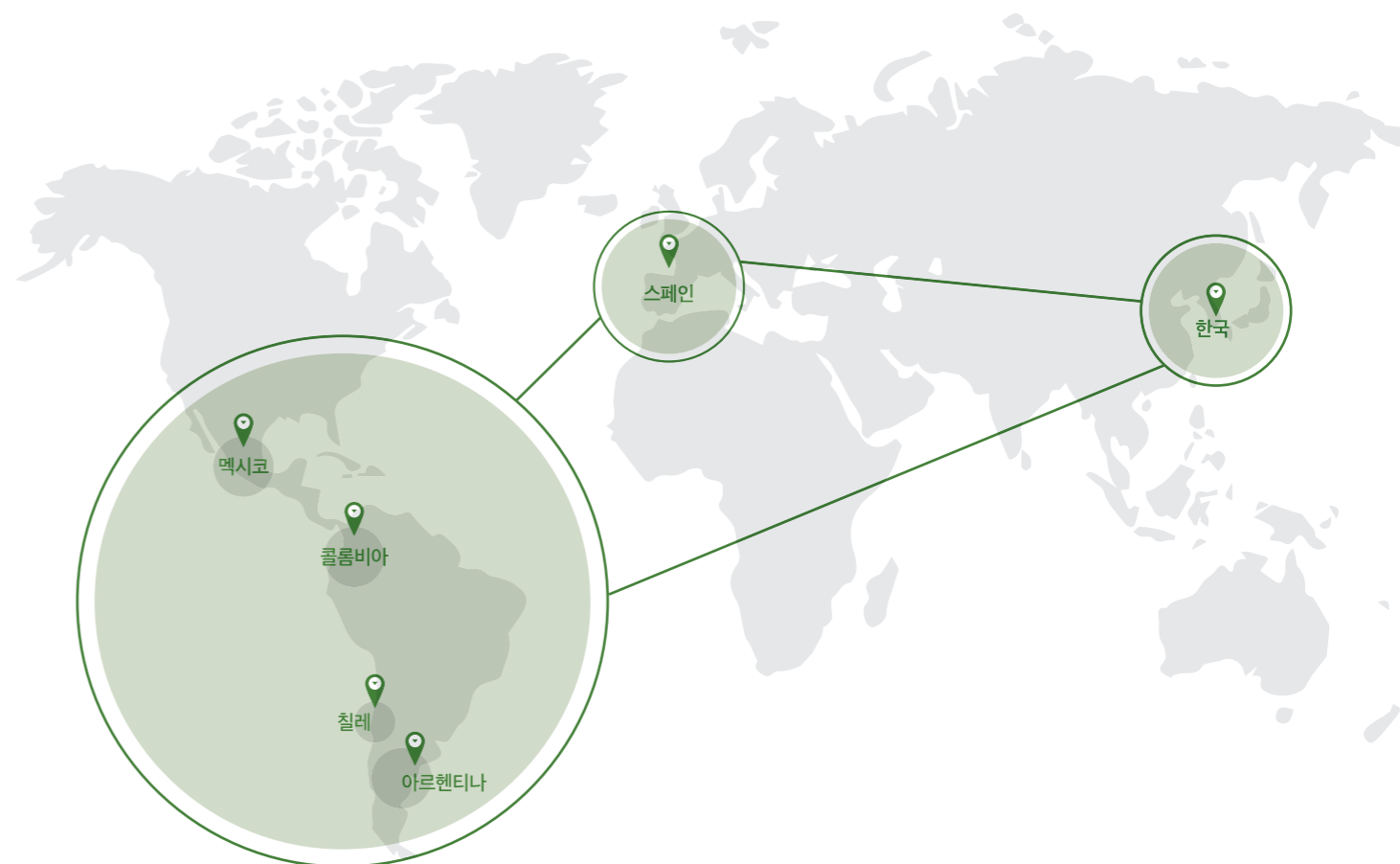
이번 공동연구는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의 우수 사례로서 한국-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중남미 국가 삼각협력의 시작점이자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은 중남미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고 디지털 전환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남미에서 85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총무역량의 18%가 하락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커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디지털 전환 진단 및 역량 강화, 자금 확보,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 및 이행,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은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와의 후속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와 같이 언어나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와 삼각협력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성과는 좀 더 쉽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성과가 새로운 성과로 이어지고 더 많은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지역개발은행-개별 국가와의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종보고회 권오규 전(前) 부총리 개회사(2019.10.22.)

KSP 삼각협력



KNOWLEDGE SHARING PROGRAM

PART

5



부록

2019/20 KSP 사업 목록
2019/20 KSP 지역연구 결과 요약

2019/20 KSP 사업 목록

사업 유형

- 양자 : 한국과 협력국 정부간(G2G) 양자 협력 방식의 정책자문 사업
- 공동컨설팅 : 국제기구와 연계한 삼각 협력 방식의 공동컨설팅 사업(사업명 앞 괄호: 해당 국제기구)

| 아시아 | | | | | |
|-----|----|-------|---|--|---------|
| 연번 | 유형 | 협력국 | 사업명 | 협력부처 | |
| 1 | 양자 | ASEAN | 아세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자 교육훈련 체제 개선 | ASEAN 사무국 | |
| 2 | | 라오스 | 라오스 지속가능한 고체폐기물 관리 방안 | 공공사업교통부 | |
| 3 | | 몽골 | 몽골 거시안정성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관리방안 | 재무부 | |
| 4 | | 몽골 | 몽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국경 간 증권발행 및 투자인프라 구축방안 | 재무부 | |
| 5 | | 미얀마 | 미얀마 만달레이 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계획 수립 지원 | 만달레이시 개발위원회 | |
| 6 | | 베트남 | 베트남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 보건부 | |
| 7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기술혁신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방안 | 중소기업부 | |
| 8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중버스체계 개선 전략 수립 지원 | 자카르타 시정부 | |
| 9 | | 캄보디아 | 캄보디아 도로교통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수립 | 공공교통부 | |
| 10 | | 캄보디아 | 캄보디아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지원 | 우정통신부 | |
| 11 | | 필리핀 | 필리핀 개방형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 정보통신기술부 | |
| 12 | | 필리핀 | 필리핀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위한 정책자문 | 예산관리부 | |
| 13 | | 필리핀 |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 | 보건부 | |
| 14 | | 공동 | 베트남 | (WB) 베트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양성을 위한 베트남 기술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자격제도 지원 방안 수립 | 노동보훈사회부 |
| 15 | | | 인도 | (ADB) 인도 항만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 강화 사업 | 상공부 |
| 16 | | | 캄보디아 | (ITC) 캄보디아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해외공공조달시장 역량강화 지원 | 재정경제부 |

| 아프리카 | | | | |
|------|----|-------|--|--|
| 연번 | 유형 | 협력국 | 사업명 | 협력부처 |
| 1 | 양자 | PASET | PASET 회원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중심으로 | 에티오피아 과학고등교육부, 르완다 교육부, 세계은행 PASET 사무국 |
| 2 | | 가나 | 가나 효과적인 세제·세정개혁과 국내세수 증진을 위한 ICT 활용 방안 | 재무부 |
| 3 | | 모잠비크 | 모잠비크 운전면허교육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컨설팅 | 교통통신부, 육상교통청 |
| 4 |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효과적인 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 강화 | 혁신기술부 |

| 중남미 | | | | |
|-----|----|---------|--|----------------------------|
| 연번 | 유형 | 협력국 | 사업명 | 협력부처 |
| 1 | 양자 | 브라질 | 브라질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컨설팅 | 특허청 |
| 2 | | 에콰도르 | 에콰도르 수출 역량 강화 및 대 아시아 수출 증진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컨설팅 | 생산통상투자수산부 |
| 3 | | 파라과이 | 파라과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시스템 및 거버넌스 개선 | 고용노동사회보장부 |
| 4 | | 페루 | 페루 교육 분야 ICT 활용 방안 | 교육부 |
| 5 | | 페루 | 페루 파나맥스급 및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 제조 관련 시설 구축 및 현대화를 위한 분석 및 전략수립 | 국영조선소 |
| 6 | 공동 | 도미니카공화국 | (IDB) 도미니카공화국 도로자산관리 시스템 전략 수립 지원 | 공공사업통신부 |
| 7 | | 멕시코 | (GGGI) 멕시코 소노라주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 소노라 주정부 생태·지속가능개발위원회 |
| 8 | | 에콰도르 | (IDB) 에콰도르 ESS를 활용한 갈라파고스섬의 안정적, 최적 그리드 방안 수립 | 에너지 및 비재생에너지원부 |
| 9 | | 온두라스 | (IDB) 온두라스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 지원 | 에너지부 |
| 10 | | 코스타리카 | (IDB) 코스타리카 중소기업혁신형 공공구매정책 수립 지원 | 경제산업통상부 |
| 11 | | 콜롬비아 | (IDB) 콜롬비아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지원 | 기술정보통신부, 국가기획처, 국립보건원, 조달청 |

| 중앙아시아·유럽 | | | | |
|----------|----|---------------|--|---|
| 연번 | 유형 | 협력국 | 사업명 | 협력부처 |
| 1 | 양자 | 불가리아 | 불가리아 경제위기 감지 조기경보 프레임워크 개발 | 불가리아 과학원 경제연구소 |
| 2 | | 비세그라드 그룹 (V4)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비세그라드 국가들의 혁신 역량 강화 방안 | 헝가리 외교통상부, 체코 산업통상부, 폴란드 경제개발노동기술부, 슬로바키아 경제부 |
| 3 | | 세르비아 | 세르비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3개년 개발계획 이행 지원 |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실 |
| 4 | |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 바쿠 항만 운영 현대화 타당성조사 | 바쿠항만청 |
| 5 |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주택보증기금 |
| 6 |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예금보험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예금보호원 |
| 7 | | 헝가리 | 헝가리 통합재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 국고청 |
| 8 | 공동 | 우즈베키스탄 | (ADB)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고등교육부 |
| 10 | | 조지아 | (ADB) 조지아 수자원 공급 및 위생 인프라 서비스 개선 및 조직역량 강화사업 | 지역개발인프라부, 수도운영기업 |

2019/20 KSP 지역연구 결과 요약

미얀마 KSP 유망협력분야 추진방안

| 연번 | 협력분야 | 협력방안 | | 개발·경제협력 기대효과 | |
|----|-----------------------|---|--|--|---|
| | | 협력방안 | 고려사항 | 미얀마 | 한국 |
| 1 | 에너지(가스, 전력) 관련 인프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발 가스전 탐사/조사 • LNG 수입 관련 하드/소프트 인프라 구축 • 가스 파이프라인 개보수 • 배전망 현대화 (+통신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MDB와의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P 2030(3.6, 5.4) 달성에 기여 • 산업발전 제약요인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 • 현지 진출 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
| 2 | 공공투자관리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세부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거버넌스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현황분석 프레임워크 활용 • 시범 사업으로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P 2030(2.4, 3.3, 3.6) 달성에 기여 • PPP사업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의 PPP사업 참여 • 현지 진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
| 3 | 인적자원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기금의 조성 및 지출 •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한-미얀마 경제협력 강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P 2030(4.5) 달성에 기여 • 인적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 기업의 기업환경 및 생산성 제고 |
| 4 | 토지관리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관련 법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와 추진 중인 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 주변국의 개선사례 참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P 2030(3.3) 달성에 기여 • 외국인투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
| 5 | 조세행정체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서비스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WB와 추진 중인 조세제도/시스템 개선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P 2030(2.3) 달성에 기여 • 세수 확대 및 기업환경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의 시스템구축사업 참여 • 현지 진출 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
| 6 | 도시개발/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라 지역의 도시개발 저해요인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빠르게 사업 추진 • 양국 공공·민간 관계자와의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P 2030(5.6) 달성에 기여 • 도시문제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 양국의 최대 경제협력 사업으로 발전 |
| 7 | 수출다각화 및 FTA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수출산업/품목의 수출 확대 • FTA 활용 및 협상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C와 추진 중인 수출강화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P 2030(3.4) 달성에 기여 • 수출 확대 및 산업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의 유관 인프라 사업 참여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

인도네시아 KSP 유망협력분야 추진방안

| 연번 | 협력분야 | 협력방안 | 고려사항 | 개발·경제협력 기대효과 | |
|----|-----------------------|--|---|--|--|
| | | | | 인도네시아 | 한국 |
| 1 | 신수도 및 주요도시 스마트 시티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플랜 수립(타당성 조사, 재원조달 방안,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과 운영 방안 등) • 통합운영플랫폼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 마련 • 스마트 교통 결제 시스템 및 BRT 교통 서비스 구축 • IoT 접목한 스마트 타운/단지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EIPP 등 정부 간 사업 또는 국제기구 사업과의 연계 필요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등 기술표준 도입단계부터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이전, 제4차 RPJMN (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 Movement Toward 100 Smart City 달성에 기여 • 도시문제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의 주요 사업으로 발전 가능 • 인프라 구축 사업 연계 잠재력이 커, 한국기업 진출 확대 • 현지 진출 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
| 2 |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의존도 완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발전 모델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 규제의 영향이 큰 부문으로 규제 변동성, 토지 획득 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 • 지역별 그리드 접근성, 가용한 발전원 등에 적합한 모델 개발이 필요 • 'ASEAN 오프그리드 전력화 정책 프레임워크' 참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접근성 및 공급의 질 제고를 통한 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 • 국가기후변화기여방안 (NDCs) 달성에 기여 •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 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 한국기업의 전력산업 내 하위시장 진출 확대 |
| 3 | 항만물류 인프라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인한 콜드체인 유통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냉동물류 분야 협력 • 수도 이전 적지인 칼리만탄 동부 발릭파판 항만 인근 물류 인프라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식품 수요가 많은 자바 지역 중심으로 우선 협력 • 중·장기적으로 수산물 생산이 많은 솔라웨시, 칼리만탄 지역으로 콜드체인 인프라 확장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으로 인한 발릭파판 항만 초과 물동량 수요 대응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검토 중, 이를 활용/연계한 협력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연계성 증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이니셔티브 기여 •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식품의 질 제고로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유치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 기업의 기업환경 및 생산성 제고 |
| 4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분야 5개 주력 산업 중심, 대상 산업 및 지역의 기존 디지털 인프라 여건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우선목표 설정, 시행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프라, 중앙/지방 정부의 혁신 주도 역량, 관련 기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 여건과 수요에 대한 선제적 분석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추진 기반 조성 •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 제조기업 생산 기지 전문화 • 주력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망 다변화 |

우즈베키스탄 KSP 유망협력분야 추진방안

| 연번 | 협력분야 | 협력방안 | | 개발·경제협력 기대효과 | |
|----|-----------------------|---|--|--|--|
| | | 협력방안 | 고려사항 | 우즈베키스탄 | 한국 |
| 1 | 농업 현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근교농업의 Smart Farm 구축 지원 농기계 수출 및 농기계 기술협력 및 기술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개시설 부족 및 도시 접근성 문제 IsDB, ADB와의 주요 협력분야 세계 6번째 면화 생산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21 경제사회발전전략 달성 및 주변 국가로의 수출 확대 농산물 다양화 및 고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확대 중소기업 진출 |
| 2 | 스마트시티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기반의 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 상하수도 건설 수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중심의 IT 인프라 구축 기술 및 기술인력 미비 도시재생 및 도시건설 적극 추진 스마트시티 계획의 중점 추진 분야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사회경제종합발전예 부합 지역균형 발전 및 건설산업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Smart city 홍보 패키지 지원 도모 |
| 3 | 에너지 (태양광/지역난방) 인프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경제특구 지역의 전력망 공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역난방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망 노후화로 전력 공급 문제와 사용료 부담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구조 태양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 (동남권)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전력 사업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사회경제종합발전의 에너지 공급 목표달성에 기여 지역균형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가치사슬 연계 가능 스마트시티 지원 새로운 개발협력 방안 제고 |
| 4 | 전자상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 제도 및 법안 지원 플랫폼 구축 협력 물류 및 운송 사업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 및 운송 능력 부족, 이중내륙국으로 통관절차 문제 전자상거래 법제도 미비 IT를 중심으로 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개선 역내 교역확대를 위한 WTO, EAEU 가입 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21 경제사회발전전략의 시장자유화에 기여 플랫폼, 물류 및 운송사업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확대 K-뷰티, 패션 분야로 확대 발전 |
| 5 | 건설산업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건설사업 참여 건설기계 수출 및 기술협력센터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특구 활성화 지원 공공투자프로젝트 확대 예정 도로 및 철도 건설, 전력 공급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투자재원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사회경제종합발전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 건설기계 산업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프로젝트 수주 부품 수출 기회 제공 |